

지역건설업 촉진 시행규칙 제정

군산시, 수주환경 조성... 하도급 참여·지역자재·장비사용 등 실행력 확보 위해 마련

군산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제각각 가능한 수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후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장비사용 등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내 최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부서 추진실적 자료제출 근거와 점검시기를 정기점검, 수시점검

을 규정했다. 점검내용은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사용 및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이다.

이행상황 점검대상은 군산시 발주사업 및 인허가 민간건설산업으로 △군산시 발주사업은 도금액 2억원초과 종합공사, 도금액 1억원초과 전문공사, △민간건설사업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금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범위를 지정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

했다.

아울러 주요 대형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은 그간 관념적, 선언적인 법규정을 보다 상세화, 구체화함으로써 잠재된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의회 최중오 의장과 김미선 의원은 지난 15일 모현동에 위치한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을 찾아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생생한 현장 목소리 듣다’

익산시의회 최중오 의장·김미선 의원, 서부다목적체육관 찾아

익산시의회 최중오 의장과 김미선 의원은 지난 15일 모현동에 위치한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을 찾아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중오 의장과 김미선 의원은 다목적체육관을 관리하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심보균 이사장, 김용균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헬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귀담아듣고 함께 달의실,

사위장 등을 시설이용자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중오 의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제기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편이 해소되고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선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국 수험생 다 모여라”... 익산시, 수험생 행사 마련

3Go 이상한 교도소·시티투어·초대형 미끄럼틀 등 무료 체험

익산시가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전국 수험생에게 여행과 휴식을 통한 기쁨을 선물한다.

익산시는 수능이 끝난 뒤 첫 주말을 맞아 오는 18~19일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3Go(고) 이상한 교도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3Go(고) 이상한 교도소의 3고는 '도전하고 놀고 상받고'를 줄인 말이다. 말 그대로 도전을 통해 신나게 놀고 상까지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초등부와 청소년부, 성인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놀이기구(에어바운스) 4종 도전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전 성공 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게는 더욱 특별

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익산시는 또 수험생들을 위해 시티투어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들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순환형 시티투어와 테마형 시티투어를 별도의 요금 없이 체험할 수 있다.

순환형 시티투어는 버스 탑승 시 운전 기사에게 올해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된다. 테마형 시티투어의 경우 예약 시 미리 수험생임을 알리고 마찬가지로 버스에 탑승할 때 수험표를 보여주면 된다.

짜릿하게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체험도 준비돼 있다. 시는 수능일인 18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수능

수험생에게 다이너 키즈월드 실외 체험시설인 나산형·드롭형 미끄럼틀, 스카이프 등 3종 놀이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한 '도장 찍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익산시가 준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에 참가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관광안내소나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에 비치된 용지에 △미륵사지 관광안내소 △백제왕궁박물관 △보석박물관 관광안내소 △교도소세트장 중 2개소에서 도장을 받아 SNS에 올리면 된다.

참여 신청을 한 선착순 200명에게는 치킨 쿠폰이 발송된다. 수험표를 인증하면 익산시 마스크트인 마물이 인형도 덤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베트남 다락성대표단, 계절근로자 교류협력 '강화'

익산시는 베트남 다락성 인민위원회 대표단과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다락성 인민위원회 허임기도 허(H'YM KDOH)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과 전북도청 담당직원 등 8명은 익산시에 위치한 계절근로자 고용농장을 방문해 근로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익산시청을 방문해 간담회에 가졌다.

이 방문은 양 지역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와 대표단은 베트남 다락성 애아



순군 계절근로자 MOU의 성공적인 유치로 계절근로자 확대와 농업과 더불어 기업 투자유치, 문화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농가와 근로자간 언어소통 문제 개선을 위해 베트남 현지 다락성 한글학당에서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농업근로에 실용적인 한국어교육 실시와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농업중사 이력 확인 강화 등을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베트남 다락성 애아순군 계절근로자 유치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라며 "계절근로자들이 있어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및 불법 근로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농가수요에 맞추어 계절근로자를 확대할 것이며, 다락성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공동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금강미래체험관, 2023 초록별 탐험 대축제 개최

군산시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고 생태·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2023 초록별 탐험 대축제를 오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록별 탐험 대축제는 △행복한 지구 만들기, △환경사랑 미술공연, △업사이클링 전시회, △생활공작소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 △겨울철새 탐조프로그램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오는 18일 시민 누구나 금강미래체험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빈병 무드 등 만들기, '병뚜껑 블록놀이', '비공공예', '환경사랑 미술공연(오후 2시)' 등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가까운 미래 지구의 모습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 지하여 함께 공동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를 지원하면 편곤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사랑 미술공연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공연이다.

또한 우리지역 활동가인 문태현 미술사(문태현 대표)가 이번 대축제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환경미술을 처음으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사이클링 전시회는 우리지역 닥뽕 김순화 대표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오는 2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전시해 작가의 순수창작 작품을 통해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생활공작소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은 위에 전시된 작품 중 선정돼 오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업사이클링 작품을 시민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3년 민주시민 6차시 역량강화 교육 시작

군산에서 진행되는 2023 민주시민교육이 매주 화요일 콘텐츠포토리, 군산시민예술촌에서 펼쳐진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실시되며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총 6차시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금융, 미디어와 SNS, 챗GPT, 소통, 다문화와 지구화, 글로벌 경제 등 사회적 이슈와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주제를 선별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1차시 '기적의 자산관리법'에서는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2차시 미디어와 SNS에서는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사람북닷컴의 박재민 대표를 초청할 예정이다.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 복원 프로젝트 시작

익산시가 익산 목천포천을 도시생태축으로 복원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앞장선다.

시는 국가 신규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폐기물장치, 불법경차, 육화된 습지 등으로 훼손된 목천포 하천지역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습지로 조성하고 오염된 하천을 회복시켜 생태계 기능과 생물 다양성 향상 목표로 하고 있다.

복원사업은 훼손된 수변생태축을 복원하고, 구하도를 생태수로로 연결하여 민강강 및 목천포천과 연결하는 등 도시 수변생태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황새, 노랑부리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환경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